



# 최우수 돼지농가

- 2,926두를 출하하여 2,755두(94.2%)가 A·B등급으로 판정-

충남 청양군 남양면 매곡리 277-1 (TEL 041-943-1096)

사육두수 : 2,400두(모돈 210두)

대 표 : 전창희, 김경미 부부

축산물등급판정소 중부지역본부장 김 회 순

## 충남의 알프스에 심은 집념



2003년 고급육 생산농가로 돼지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혜성농장의 취재를 위해 청양군으로 출발하였다.

청양군은 충남의 알프스로 일컫어지는 친감산으로 유명하고 차령산맥의 여맥이 청양군의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가로질러 뻗어 내림으로써 구릉지와 산간분지가 발달되어 자연의 청정함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륙성기후와 산간분지로 인해 밤낮의 일교차가 커 고추와 구기자 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가 방문하는 날은 대한양돈협회 청양군지부가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시식회”를 청양군청 앞마당에서 개최하고 있었는데, 행사장에서 홍보에 열중하고 있는 전창희씨 부부를 만났다.

이날 행사를 마치고 청양군 남양면 매곡리에 소재한 혜성농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창희·김경미 부부가 축산업에 들어서면서부터 오늘날 성공으로 가는 기쁨을 마련하기까지 드라마 같은 인생역정을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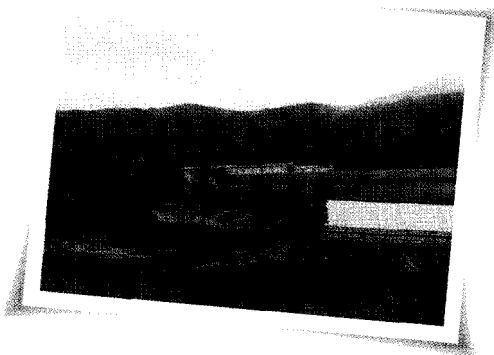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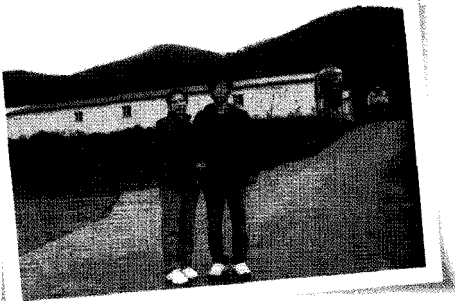
## 돼지 문외한의 첫 출발

첫인상이 소박하면서도 겸손함이 몸에 베어 있는 전 사장 부부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사리사욕에 영합하지 않는 올곧은 축산인임을 인터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느낄 수 있었다. 이들 부부는 서울 태생으로 줄곧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직업도 축산업과 거리가 먼 의료관련 유통업과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평상시 축산업의 목가적인 풍경과 자연환경이 좋은 시골생활을 동경하던 차에 1986년 충남 당진군에서 신외의 바탕으로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한다는 경영이념을 가지고 전원생활을 시작하였다.

처음에 15두의 젖소 비육으로 축산업에 첫발을 디뎠으나, 이웃집의 여학생이 소 분뇨 등의 냄새로 인해 매일 아침식사를 거르고 학교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가락질 받는 축산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농장 후보지를 찾아 전국 각지를 6개월간 탐방하면서 구입한 곳이 지금의 혜성농장 부지이다.

1989년도에 이주할 당시 농장부지는 민가가 적은 외딴 골짜기에 위치함으로써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5~6년간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전사장이 동네 새마을지도자직을 맡으면서 주민들과 출향민, 지자체 등의 도움으로 마을 진입로 불확·포장하면서 농장은 축산업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약 35,000평의 부지를 기반으로 150마리의 면양을 사육하였는데, 털과 고기를 생산하여 꽤 괜찮은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이 무렵 시작된 축산물수입자유화는 1년6개월만에 면양사육을 마감하게 하였고, 우연한 기회에 임신한 어미돼지를 한마리를 구입하여 기른 것이 양돈과 첫 인연을 맺게 되었다.



### 어미돼지 한 마리로 일군 농장

처음 구입한 어미돼지가 11마리 새끼를 낳아 주어 큰 도움을 주었으나, 두 번째 분만에서 사양기술 부족(수정 적기를 못 맞추고 과비육 시킴)으로 겨우 1마리밖에 낳지 않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전사장 부부의 돼지사육에 대한 가나간 공부가 시작되었다.

다행히 1995년 축협중앙회의 목우촌가공장이 준공되면서 평소 농장의 경영이념으로 생각하며 실천해오던 품질 고급화와 신뢰성 제고를 실현해 보이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계열화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축협 목우촌에서 실시하는 농가 컨설팅을 철저히 따랐고, 모르거나 의문이 가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물었다. 축산에 문외한이던 전사장

부부는 2주마다 찾아오는 당시 컨설턴트 김영현 차장을 믿고 그들의 지도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최고의 양돈인이 되었다. 또한, 이들 부부 역시 눈앞의 이익이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목우촌과 맺은 납품 계약을 신의로서 오늘날까지 지켜왔다. 1997년과 1998년 엔화의 가치가 인상되어 대일 수출에서 수익을 올리던 육가공업체가 원료돈 확보를 위해 옷 돈을 주며 유혹하던 그 당시, 이들 부부는 유혹을 뿌리치고 품질 고급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뜻을 두고 실천하였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98년 양돈인으로서 수출유공자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지금도 전사장 부부는 목우촌과 꾸준히 거래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컨설팅으로 사양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어려웠던 시절 사양관리 지도를 잘해준 컨설턴트들이 목우촌에 있는 한 목우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겸손하게 말하였다.

### 고급육 생산의 비법은 없다! 교과서대로 실천할 뿐!

고급육 생산에 특별한 사양관리기술이나 비법이 있느냐?는 취재자의 질문에 전장희 사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술을 실천에 옮겼을 뿐이라고 했다. 최근 인근에서 “2003년 고급육 생산농가 표창” 수상 소식을 듣고 돼지를 잘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 때가 가장 곤란스럽다고 한다.

혜성농장은 목우촌 종돈사업소로부터 구입한 F1(Y×L)을 이용하고 있으며 비육돈 2,400두(모돈 210두) 사육규모로서 연간 4,100두를 출하하고 있다. 비록 다른 농장에 비해 분만회수가 2.0이하로 떨어지는 편이지만 항상 초보자의 자세로 기본에 충실한 경영을 펼치고 있다.

또 상시 일정 두수를 유지하여 매월 약 380두를 꾸준히 출하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는 역할분담을 통해 전문화와 효율성을 높였는데, 전사장은 주로 돼지출하, 종돈구입, 축사보수 등 대외적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부인 김경미씨는 2명의 직원과 함께 돼지사양관리에 전념하고 있다.

사료는 농협 목우촌에서 주문자 생산방식(OEM)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종돈 통일과 함께 사양관리 지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기 맛을 맞추기 위하여 계열화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돈은 수컷의 경우 100% 거세를 실시하고 이유시 80~100마리를 한 돈방에서 기른 후 60일령이 되면 압태시와 거세돼지로 구분하여 한 돈방에 10~12마리를 넣어 비육시킨다.

## 방역은 우리 모두의 필수사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철한 방역의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혜성농장 주변에는 반경 8km 이내에 양돈장이 없어 질병의 전염원이 낮은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잘 지켜오고 있다.

관제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도 사료수송차 및 돼지운반차 등 일부만 출입이 가능하며, 사료운반 차량의 경우에는 짐을 내리는 동안 운전자를 차량 실내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 등이 좋은 예이다. 물론 농장의 출입구를 들고 날 때는 반드시 분부터닐을 통과하면서 소독을 거쳐야 한다.

## 출하체중에 도달한 것만 골라서 출하한다

2003년도 9월까지 혜성농장에서 출하된 돼지는 2,926두이고 이중 A등급 69.6%, B등급 24.5%로 A?B 등급 출현율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34%포인트 정도 높았는데, 이는 가장 기초적인 것에 충실함으로써 최고의 고급육 생산 농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하체중110kg에 도달한 돼지만 골라서 출하하는 것이다. 같은 돈방에서 사육된 10~12마리의 돼지라도 출하시 출하체중에 도달하지 않은 위축돈은 그 돈방에서 1~2주를 더 비육시켜 출하함으로써 고급육 출현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었다. 이는 상품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어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전시장도 대한양돈협회 청양지구 회원인 동료 양돈인 조언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출하는 한차(5톤 초장축)에 38두를 실어 적정두수를 반드시 유지하고, 출하시각은 농장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하여 오후 1시에 김제 목우촌육가공장에 도착하

도록 하며 항상 보령만지고 한 차를 2시간 정도 운전도로를 이용한다고 한다. 이는 무리한 역류일지라도 달리는 길에는 자연바람이 들어와 시원함으로 큰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반면, 도착 계류시엔 비닐을 씌워 온도가 내려가 대기는 시원할 최소하여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것이 전시장의 변두어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출하 환경결과는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사양관리에 이용하는 것이다. 출하일자별로 계류에서 도축에 소요되는 시간, 도체번호, 도체중, 도체율, 등급별 출현율, 수취금액 등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월별로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 축산분뇨는 액비로 재활용

혜성농장은 비육돈사, 후보돈사, 모돈사, 분만돈사, 자돈사, 대기사 등 7개동의 건물이 있는데, 비육돈사와 대기사 및 일부 분만사는 원치커텐식이고 나머지는 무창 돈사이다.

그리고 축산업에 첫발을 들여놓고 얼마 되지 않아 얻은 뼈저린 경험 탓인지 양돈장 환경개선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악취 및 파리퇴치를 위해 미생물제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하고 있으며, 이미 6년전인 1998년에 축산분뇨 처리장을 설치하여 돼지분뇨를 전량 농축분뇨처리 후 액비화하여 이웃의 요청에 따라 농작물 수확을 마친 농경지에 무상으로 살포해주고 있다.

## 혜성농장의 청사진

전시장 부부는 사육규모를 향후 5,000두 규모로 확대하고 계열화사업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통해 브랜드파워를 육성함으로써 육가공업체와 양돈농가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공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대일 수출에 박연히 의지하는 것보다 내수시장의 소비확대와 품질향상을 통해 저가공세로 밀려올 수입육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급육 생산장려금을 확대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